

지구를 사유하다_다르게 사유하기 [Earth calling_Thinking otherwise]

“삶-생명의 예술되기와 예술의 삶-생명되기의 순환적 실험”

기간 : 2012년 8월 30일 - 9월 9일

총괄기획 : 백용성

참여작가 : 안당 칼레나 (인도네시아), 우부 나사 로비 (방글라데시), 간죽 세드바자르 (몽골), 사라우트 추티완페티 (태국), 김태덕, 정재민, 프로젝트 커뮤니티 찌찌뽕 (송지은+박승원)

짧지만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여행이었다. 8명의 작가들이 7월초부터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분주히 움직였다. 왜냐하면 8월 4일 <원곡동 핫써머 피서 페스티벌>이라는 중간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더웠다. 더워도 너무 너무 더웠다. 특히 해외작가의 경우 오직 선풍기만이 있는 열악한 레지던시 숙소에서 그 더위를 견디는 것은 그 자체로 고역이었으리라. 하지만 그들은 강자다.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자신의 작업을 꾸준히 진행한 대목은 아름답다. 많은 이들의 위문(?)도 아름다웠다. 8월 4일 페스티벌의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고 자평하고 싶다. 얼음 설치에서부터 퍼포먼스, 영상제, 바 운영, 플래카드 설치 등 열려있으면서도 신선한 시도들이 좋았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더위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때문에 밤늦게 까지 같이 해준 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가장 더웠다는 폭염이 사그라지고 제법 가을 냄새를 풍기는 시기이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막바지다. 그것은 서로가 헤어져야할 시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대되는 것은 역시 참여 작가들의 마지막 결과 보고 전시 작품들이겠다. 이번 전시는 8월4일 페스티벌의 연장과 일정한 완성작들, 전혀 새로운 작업들로 구성되며, 참여 관객자들과의 진지하거나 유쾌한 대화의 장인 <작가와의 대화>가 전시오픈과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독특한 ‘순환’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우리의 사회적 삶은 상품의 교환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많은 순환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주 개인적으로 보이는 독서행위에서부터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각자의 느낌, 정서, 생각의 순환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예술은 사회의 순환을 다채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순환, 즉 예술만이 실험할 수 있는 감각순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사회적이면서도 감각_정서에 대한 순환의 실험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순환의 개시를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의 지표들이다.

FLUXS'12 - 유목의 다섯 가지 자세들

‘다문화’라는 표상을 넘어서는 예술실험들

기간 : 2012년 11월 11일 - 11월 19일

총괄기획 : 백용성

참여작가 : 김태균, 한지혜, 정재민, 시도들, 임민영, 유목연

도시는 확실히 순환이고, 가속화되면서 복잡한 흐름이 되고 있다. 원곡동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 이번 신진작가 플랫폼 <FLUXUX'12>에 참여한 작가들은 대부분 이러한 흐름들을 다루면서도 다양한 천개의 주름들을 펼쳐내고 있다. 하지만 지적할만한 것은 그들이 이미 대표적인 상징이 되어가는 ‘다문화 원곡동’이라는 표상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균 작가의 <원곡동 얼음캠프>는 폭염이라는 자연과 인간이 맺는 관계들에 얼음이라는 일시적 사물로 개입해 들어오는 사건을 표현한다. 그 사건에는 시원함이라는 생리적 쾌락과 함께 함이라는 인간적 즐거움이 얹혀있다. 임민영 작가의 경우는 다섯 나라의 자장가를 통해 이질성을 증폭시키면서도 묘한 공통성을 내포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유목연의 <목연목차>는 말 그대로 유목적 포차를 통해 커뮤니티를 시도한다. 여기엔 다문화의 표상들을 재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게 문제이다. 아마 누구나 인간이라면 갖는 문화이전의 세계를 통해 원곡동에 새롭게 접근하는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다문화를 해체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시도들의 <Nothing Flag>는 외국인 주민 센터에 걸린 각 국가의 상징인 깃발을 내리고 그 자리를 비어있는 어떤 깃발로 대체하는 설치이자 퍼포먼스이다. 이는 명백한 표상에 대한 저항이자 해체의 시도이다. 혹은 다문화가 숨기는 진정한 차별, 구획, 권력의 분할을 드러내는 시도도 가능할 것이다. <출입사무소>가 그러하다. 한지혜 작가는 두루뭉술한 다문화의 표상을 넘어 미시적인 관계망들에 얽힌 미시정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두가 유동하는 다중이라면 누가 통치성의 금을 긋는가? 새로운 해석들, 새로운 시각들, 새로운 목소리들..... 하지만 제한된 프로그램의 일정은 늘 몇몇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신진작가 플랫폼 <FLUXUX'12>에 참여한 작가들의 뜨거운 열정과 섬세한 관찰들, 그 노력들의 온기가 리트머스 갤러리에 여전하다. 치어스!

도시, 신체 그리고 예술 [City, Body and Art]

유동하는 도시, 춤추는 몸, 교감하는 예술을 위하여 [FOR THE FLUX CITY, DANCING BODY AND COMMUNING ART]

기간 : 2012년 7월 21일, 8월 16일, 11월 14일

총괄기획 : 백용성

1차: 2012년 7월 21일 4:00~6:00 pm,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주제 1: 사라 바트만과 탈주하는 몸 : 탈식민주의의 관점으로

- 이 석 호 (원광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사)아프리카문화연구소소장)

주제 2: 다르게 느끼기: Voyager in Voyager out and Skin and Map

- Sayako Mizuta (independent curator)

2차: 2012년 8월 16일 4:00~6:00pm, 예술가의 집

주제 1: 도시에서 창조적 나눔과 예술

- 치카히로 하나무라 (오사카 대학교 건축학 교수)

주제 2: 유동하는 도시와 예술

- 이와사부로 코소 (Sabu Kohso, <유체도시를 구축하라>의 저자)

3차: 2012년 11월 14일 4:00~6:00pm,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주제 1: 커뮤니티 아트와 대안 공간의 역할

- 백기영 (경기도 미술관 학예팀장)

주제 2: 욕망, 부채와 선물

- 백용성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디렉터)

기획의도

이번 릴레이 아트포럼은 도시혁명이후(아직도 과정이지만) 그 공간의 변용 속에서 벌어지는 사회학적, 인류학적 변화를 포착하고, 그 과정에 대한 혹은 그 과정 속에서의 예술의 반응과 창조적 대응의 흐름을 고찰하고 향후 예술이 나아갈 방향과 변화의 지점을 모색해보고자 기획되었다.

아닌 게 아니라 도시는 하나의 키메라처럼 우리의 몸을 둘러싸며, 몸들의 신경증을 야기하고 있다. 도시는 위생적이며 광학적이고(시각중심에서 초 광학적 풍경으로 변화중이다) 팔루스중심적인 위용을 자랑하려고 한다. 모든 공간의 균질화와 파편화 그리고 위계화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도시기계 역시 기생적일뿐이다. 더 광대하고 무정형적이고 분열적인 흐름위에 올라타 있을 뿐이기 때문이고, 이 대지의 힘의 변용태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작동'한다. 그것을 로고스센트리즘이나 서구중심주의나 남성중심주의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르페브르의 지적처럼 우리의 삶의 공간이 생산되고, 재생되기 때문이다. 그는 삶의 공간의 역사가 절대공간에서 역사적 공간으로 상대화되고 다시 추상공간으로 변하면서 지금 차이의 공간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도시기계의 '작동'은 분열적 작동과 함께, 그 위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분열적 작동은 늘 기계보다 빨리 일어나며 기계보다 빨리 질주하며 빨리 드러난다. 그것은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일종의 '풀'이라는 몸체의 저항적 과정이다. 그러나 도시기계는 늘 그것을 붙잡고, 자신의 속도로 포획한다. 대기화하는 모든 것은 고정화하는 모든 것이 되어가고, 고정화하는 것이 기계로서 다시 모든 걸 탈영토화시키고 고정화시킨다. 일상의 리듬은 그러므로 여

전히 신경증적이다. 재생적인 반복리듬과 차이화의 반복리듬이 우리의 몸을 주파한다. 우리의 몸이 그것을 주파한다. 주파하면서 몸들은 벡터화되고 감염되고 충돌하고 관통한다. 존 케이지의 리듬도 백남준의 리듬도 이것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리듬에 예술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혹은 이러한 반복적 리듬 속에서 예술은 어떻게 솟아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다. 커뮤니티 아트, 퍼블릭 아트 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도 이러한 질문 속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간의 지각, 체험, 사용은 신체의 변용의 문제이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 클럽을 가 보라, 쿼어 공간을 가보라. 갤러리, 극장, 관공서, 학교, 집 등을 가보라. '나'의 몸은 즉각 반응한다. 냄새, 소리, 분위기, 기분, 감정, 여러 생각까지. 그것은 공간을 벗어나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니 공간이 비어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미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몸의 해방, 강렬한 느낌을 원하는가? 거기에 공간이 있다. 몸의 우울을 느끼는가? 거기에 공간이 있다. 거기에 공간이 생성된다. 메를로-퐁티의 체험적 몸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체험이 전에 느낌의 일어남, 무언가 일어남 자체가 문제다.

예술은? 예술은 이러한 공간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포착하고 있는가? 어떻게 포착해야 하는가? 모든 게 포즈화되고,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 고정되면 그것은 다시 감염되어 예술가들의 두뇌에 파고든다. 공간을 보는 방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시각중심주의적 경향과 그 반대방향인 행동주의적 경향들... 포즈는 스타일이 아니다. 포즈는 스타일을 파괴하고 저지하고 방해한다. 화이트 큐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즉 헤겔의 피로한 유산인 모순과 부정만으로는 한없이 부족하다. 예술은 자신의 공간을 선포하고 만들 줄 알아야 한다. 대안 공간 따위는 예술적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늘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술적 공간을 무엇이라고 상상하고 있는가? 즉 예술적 공간을 무엇으로 상상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문제이다.

우리는 서구 중심주의, 탈식민주의의 흐름에서부터 한국을 포함해, 뉴욕, 일본 등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예술적 경험, 성취들과 그 의미들을 탐색하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탐색을 이루어 내고자 한다.

새로운 다문화전문가를 위한,

인터컬처 노마드 캠프(Inter-Culture Nomad Camp)

기간 : 2013년 10월 - 12월

총괄기획 : 백용성

진행 : 지한나

1차 워크숍 : 10월 4일 오후 2시

- 오리엔테이션 : 인터컬처 노마드 캠프 (백용성, 리트머스 디렉터)
- 강연 : 고래와 사슴 1 (김남수, 평론가)
- 워크숍 : 요가-우주적 지성[Divine intelligence]의 통로 ; 몸 (이다금, 요가강사, 영화배우)
- 오픈 워크숍

2차 워크숍 : 10월 12일 오후 2시

- 강연 1: 샤머니즘 박물관 (양종승 샤머니즘 박물관 관장)
- 강연 2: 인왕산 국사당 투어 (조전환 목수)
- 워크숍 : 예술과 샤먼
- 오픈 워크숍

3차 워크숍 : 10월 25일 오후 2시

- 강연 1: 지구의 예측화 기계들 '빛'과 '재앙'
- 강연 2: 기후 정치의 현재와 미래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 워크숍 : 환경 다큐멘터리의 지구적 네트워크 (장은미, 작가)
- 오픈 워크숍

4차 워크숍 : 11월 8일 오후 2시

- 강연 1: 고래와 사슴 2 (김남수, 평론가)
- 강연 2: 우주와 소립자 (윤천실, 물리학자)
- 강연 3: 탈식민주의의 종언과 새로운 지구적 시선 (이석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평론가)
- 워크숍 : 사르키 바트만 읽기
- 오픈 워크숍

5차 워크숍 11월 15일 오후 2시

- 강연 1: 오키나와 문화 예술의 특이성 (이명원, 평론가)
- 강연 2: 대만과 예술교류 (상린 우, 작가, 큐레이터)
- 워크숍 1: 네팔 현지에서 진행되는 무늬만 커뮤니티 (김월식, 계원조형예술대학 교수, 작가)
- 워크숍 2: 언어를 학습하는 공동체 바벨 디스코스 (백기영, 경기도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 오픈 워크숍

6차 워크숍 11월 29일 오후 2시

- 강연 1: 한국에서 다문화의 현재와 미래 (백용성, 리트머스 디렉터)
- 강연 2: 이란과 여성 예술가들 (김재화, 배우)

- 워크숍 1: 교방춤 (장수진, 배우)
- 워크숍 2: 원곡동 댄스 난입 (김희재, 커뮤니티 댄스 아하 아트 코디네이터)
- 오픈 워크숍

7차 워크숍 12월 6일 오후 2시

- 강연 : 기관없는 신체와 신체 없는 기관 (백용성, 리트머스 디렉터)
- 워크숍 1: 디아스포라 혹은 이동하는 노동자 (양철모, 믹스 라이스, 작가)
- 워크숍 2: 예술가의 국제교류 (김태덕, 작가)
- 오픈 워크숍

8차 워크숍 12월 20일 오후 2시

- 강연 1: 신화와 별자리 (좌계 김영래)
- 강연 2: 에로스 우주와 우주 에로스 (백용성, 리트머스 디렉터)

기획의도

새로운 다문화전문가를 위한 인터컬처 노마드 캠프는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는 문화 예술적 현상들에 대한 기본 소양과 퍼스펙티브를 갖추고, 그 예술적 몸을 형성하고자 기획되었다. 7년여에 걸친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는 한편으로는 국경 없는 마을 원곡동과 관련한 다문화주의, 탈식민주의적 지향의 예술 활동과, 다른 한편으로는 커뮤니티 아트 활동을 주로 진행해왔다. 물론 이와 연계한 다양한 다문화 문화예술교육활동 및 커뮤니티 기반의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나, 짧은 기간의 협소한 주제를 가진 프로그램의 한계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형성과 대화의 시간이 부족하며, 매년 새로운 작가들을 만나면서도 심화되거나 확장 되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사실 아시아에서의 다문화주의는 그것의 본원지인 미국이나 유럽과는 맥락이 아주 다르며 역사와 문화자체도 다르다. 고대 인도, 페르시아, 황화의 문명과 이러한 문명의 교류들이 낳은 문화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작용하는 다양한 심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 마디로 문화자체에 대한 무지가 존재한다.

또한 동아시아적인 사고방식과 유럽/영미의 사고방식의 상당한 차이도 이미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한편으로 서구중심적인 시각이 표상적, 담론적 차원에서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피상적이거나 서구의 담론을 유행에 가까울 정도를 취급하는 패러다임만으로는 예술창작과 실천, 비평, 향유가 제대로 될 수 없다. 나아가 예술/문화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나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같은 운명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고민이, 문제의식이, 진단이,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폭넓고 심도 깊은 논의는 다양하고 입체적인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문화학, 철학, 여러 작가들의 예술작업들과 경험들 등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조성하고, 조직하고, 구축하고자 한다.

인터컬처 노마드 캠프는 국경 내에서의 다문화주의를 포괄하면서도 국경 외부의 다문화현상에도 주목해, 명실상부한 '새로운 다문화' 전문가의 기초 소양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적인 목적은 이 과정을 통과한 수강생들(작가/기획자)이 실질적인 예술활동의 퍼스펙티브를 심화시키고, 그 간접효과로서 다문화 예술교육자로서의 기본을 쌓는 것에 있다. 사실상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의 많은 부분은 이미 이러한 문화적 충돌, 간섭, 개입, 번역 등과 무관하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에도 다문화하면 음식, 의복 혹은 박제화된 민속

적 특이성 등에만 등에 머무르면서 그 기층에 흐르는 다양한 지질학적, 지리학적 층위들을 놓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지구화의 맥락에서 입체적인 교육을 통해, 1)고대서부터 형성되는 본래적인 문화 다양성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2)그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예술실천들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3) 이를 토대로 신진예술가/기획자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이해와 상상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인 예술실천들을 그 결과로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인터컬처>는 오래된 아시아의, 때로는 아시아를 넘어서는 문화교류와 다문화의 산물인 실크로드의 새로운 지구적 버전을 창조적으로 만들고 실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상징한다. 인터컬처는 반드시 물리적인 지리학만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상징적, 예술적인 외적, 내적인 변화의 길 또한 함축한다.

또한 <노마드 캠프>는 응축되고 집약적인 그러면서도 활발하고 명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즉 규칙적으로 매번 진행되는, 약간은 따분할지도 모르는 교육프로그램의 진행방식과 달리 명확한 문제의식과 주제를 중심으로 인문학, 인류학, 예술가의 경험, 작업, 워크숍, 라운드 테이블 등을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묶는 진행방식이다. 연대기적으로 축적해나가는 양의 방식이 아니라, 강도와 질이 있는 지대를 조성하는 긴장의 방식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1) 아시아적 맥락을 문화인류학, 신화학 등을 통해 본래적인 문화의 하이브리드 과정을 추적해볼 필요가 있으며, 2)서구 중심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이고 상보적인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으며(후기식민주의의 종언 등) 3)이미 이러한 방향에서 작업을 진행했던 선배 작가들의 예술 활동의 경험들을 응축해서 공감하고 공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생생한 인문_예술_과학의 인접성을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접성의 강화는 막연한 통합이나 융합과는 거리가 멀며, 서로가 개입할 수 있고 연계될 수 있는 지점을 풍부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멋진 교육프로그램의 완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제 혹은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TASK OR PROJECT BASED LEARNING)을 도입해, 시작부터 참여 작가들에게 수동적이고 성실하고 순응적인 교육생의 지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위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또한 <멀티컬처 노마드 캠프>를 통해 새로운 아트프로젝트를 구상케 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 과정 완료 후, 1회 혹은 필요시 2회의 기획전시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원곡동을 중심으로 한 참여 작가들(교육생)들의 자발적인 리서치와 그에 대한 워크숍 및 매니지먼트가 필수적이다

아시아 예술 축제 [Asia Art Festival]

“초감흥_招感興”

기간 : 2014년 9월 25일 - 9월 27일

총괄기획 : 백용성

진행 : 류혜민, 이생강

디자인 : 김현아

참여작가 : 김태덕, 주희란, 최선, 글로벌 에일리언, 신은경+김형관, 이대일, 이동하는 탑 (김태균+장근희+송지은+유화수+유목연), 최두수, 이아람, 에드윈 로세노 쿠르니아완(EDWIN ROSENO KURNIAWAN, 인도네시아), 공 웬보(GONG WENBO, 중국), 하이라ם 왕(HIRAM WONG, 홍콩), 마사코 오노(MASAKO ONO, 일본), 김경미, 목정훈, 박경소, 박성수, 신민경, 안은미 컴퍼니, 예술장돌뱅이 ANT, 전진경, 진동파티, 아부 나세르 로비(ABU NASER ROBI, 방글라데시), 하산 후자이리(HASAN HUJAIRI, 바레인), GLOBAL ALIEN, 올리파 세(OLIFA HSIEH, 대만), 쇼지 와타루(SHOJI WATARU, 일본), THE BITE BACK MOVEMENT (영국, 한국)

아시아 아트 포럼 1

일시 : 2014년 8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장소 : 아트포러스 /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8번지 2층)

주관 : (사)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발제 1: 아시아 아트와 사막 혹은 스텝 (백용성, 리트머스 디렉터)

발제 2: 동시대성의 비전 - 대칭적 관계의 아시아와 유럽 (김남수, 안무비평가)

아시아 아트 포럼 2

일시 : 2014년 9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아트포러스 /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8번지 2층)

발제 1: 아시아 건축의 흐름 (조전환, 목수)

발제 2: 아시아, 아시아의 시계(視界) 그리고 아시아 문학 (고명철, 문학평론가, 광운대 국문과 교수)

아시아 아트 포럼 3

일시 : 2014년 9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

장소 : 아트포러스/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8번지 2층)

발제 1: 예술행동, 문화적 관점에서 실천하는 사회운동 (이원재, 문화연구자, 문화운동가)

아시아 예술 축제

>> 오프닝 : 2014년 9월 25일

- 18:00 개막식

- 18:30 이대일+박경소

- 19:30 마사코 오노 솔로 퍼포먼스

- 20:00 쇼지 와타루

- 20:30 마사코 오노 커뮤니티 댄스

- 21:00 DJ PARTY

>> 원곡동 프로그램 일정 : 2014년 9월 25일 - 9월 27일

원곡동 만남의 광장

- 목,금,토 15:00~19:00 / VISIT TO THE DREAM LAND / 에드윈 로세노 쿠르니아완
- 목, 금 16:00~19:00, 토 15:00~19:00 / 원곡동 희노애락/인생상담 / 김형관+신은경
- 목,금,토 15:00~19:00 / 내 숨이 멈춘 그 점에서 너의 숨은 시작되고 / 최선
- 목,금,토 15:00~20:00 / EXPANSION / 하이람 웅

칸티푸르 레스토랑, 베트남 고향식당

- 목,금,토 19시. 20시 / 언어의 표정_CAN YOU FOLLOW ME? / 주희란

기획의도

자본주의와 기술주의가 덧씌운 '진보신화'에 의해 점령당한 미래적 시선을 오히려 오래된 과거로 전회 함으로써 새로운 신화적 상상력의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태곳적부터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공공의 무의식, 그 원초적 꿈이 지닌 선견지명으로 시선을 되돌리는 것이다. 인간이 최고의 정복자로 군림하고자 우리 스스로 몰아내었던 신과 자연을 인간과 대칭적 관계 속에 다시 자리매김하고 그 원초적 공동체의 생명력을 변화된 세상을 위한 상상력의 근간으로 삼아보고자 함이다.

신과 인류가 하나의 우주로 묶여 있던 근원적 공존의 에너지를 부활시키기는 것, 서구가 만들어낸 진보라는 신화에 가려져 있던 우리 안에 잠복되어 있는 아시아적 근원의 무의식을 들추어내는 것, 이를 공시 (SYNCHRONIZATION) 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새로운 신화적 상상력과 이를 현실화할 공동체의 힘을 발휘하는 것, '아시아 예술 축제'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초감흥 招感興”

‘초감흥’은 감흥신령인 단군왕검 앞에 여러 신령들을 불러 들여 신령들 간의, 신령들과 만신 간의, 그리고 나아가 신령들과 인간들 간의 조화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가장 신명이 높은 ‘초감흥굿’에서 유래한다. 감흥신령으로서의 단군은 북방 유라시아에서 공통적인 지고신, 즉 ‘영원하고 푸른 하늘’이라는 신격으로 통용되는 ‘텡그리(TANGRI)’의 음역을 지닌다. 이로써 감흥신령에 의해 호출된 세계의 신령들은 터주대감들이 지닌 지역의 토호로서의 성격을 버리고 하늘의 지고신으로서의 성격으로 복위하게 된다. 이는 초감흥굿이 가없이 넓고 바느질 자국 없는 하늘 숭배의 복권을 여전히 간직해 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만신 MANSHIN: TEN THOUSAND SPIRITS>의 현현(EPIPHANY) 속에서 신과 인간, 그리고 모든 개체들의 경계를 소멸시킴으로써 개체적 신명이 감통하여 공명의 에너지로 무한방출 되는 감흥의 소용돌이로서의 축제는 현실의 고립된 질서에 틈과 파열을 일으킴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공공’의 에너지를 생성시킬 것이다.

리틀 아시아_안산시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

80%의 아시아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은 아시아적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아시아의 축소판을 형상화 한다. 이질적인 문화 간의 교류, 동화, 갈등 등의 감정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 지역은 이주민들의 정주와 떠남의 반복 속에서 비교착적이고 유동적인, 그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맞물려 아시아 예술 축제는 원곡동 안에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맥락의 그물망들 속에서 아시아의 심층적인 무의식들을 발견해 내고, 현세와 초현세의 문지방과 같은 시공간으로서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생성’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전이성(LIMINALITY)’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개인적, 민족적, 문화적 경계들을 무장해제시키는 탈영토화 된 “국경 없는 마을”의 현현 속에서, 즉 ‘전이적 공간’으로서의 원곡동 안에서 새로운 아시아적 공동체의 생성을 촉구해 내고자 함이다.

‘감흥’의 매개자로서의 예술가

원곡동 지역에 잠재된 터줏대감들을 일깨우고, 다양한 아시아 이주민, 지역 주민들과의 친밀한 교접 속에서 우리 안에 잠복된 신명들을 자극하는, ‘감흥’의 매개자인 샤먼으로서의 예술가들이 축제를 이끌어갈 것이다. 개체들 사이의 거리가 지양되는 자유롭고 친밀한 접촉 속에서 다양한 표현의 그물망에서 포착해 낼 예술가적 시선은 새로운 신화적 상상력들을 구체화하고, 잠재된 공동체적 에너지를 자극할 것이다.